

# LG·금호 등 8개 석유화학 업계, 14.5조 '통 큰 투자'

GS칼텍스, 2.7조 투자·500명 고용  
LG화학, 2.6억 투자·300명 고용 등  
2023년까지 일자리 1685개 창출

석유화학업계가 2023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685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업계는 3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업계 대표들과 만난 투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날 LG화학과 전남·여수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LG화학, 현대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GS칼텍스, 여천NCC,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화치공장 연수원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의 투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케미칼 등 8개 석유화학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식에서 LG화학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의 설비투

자와 지역인재 포함 300여명의 고용창출, 지역 생산품 구매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LG화학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GS칼텍스는 여수지역에 2조7000억 규모 설비투자와 500명 고용창출을, 현대케미칼은 대산지역에 2조7000억원 규모 설비투자와 300명 고용창출을, S-Oil은 울산지역에 5조원 규모 설비투자와 400명 고용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업계는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용지 부족 문제 해소,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현장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환경규제 관련 질소산화물(NOx)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 장관은 "석유화학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애로와 건의사항은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해결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 장관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주)대건테크도 방문해 공장 가동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 위해 집적적인 산단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전국의 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집사대 '증여·상속·주담대'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을 개정

국토부, 개정법 10일부터 시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서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

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AI 등 미래먹거리 부문 확장할 듯

>> 1면 '삼성, 오늘 인사...'서 계속

60대 경영진을 50대 임원으로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삼성전자 주요 사장단 중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이 1958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다.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1959년생으로 내년 60대가 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별다른 이동은 없을 전망이다. 김기남 사장은 여전히 DS 부문에서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고, 이동훈 사장은 작년에 처음 보직을 맡은 까닭이다.

두 대표는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전영현 삼성 SDI 사장과 홍원표 삼성SDS 사장이 1960년생, 삼성전자 고동진 IM부문장과 김현석 CE부문장이 1961년생이다. 아직까지는 세대교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단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과 전동수 삼성메디슨 대표는 1958년생으로 60세를 넘긴데다, 3년 이상 재임한 탓에 거취에 주목이 쏠린다.

◆실무진에 신상필벌?

/김재용 기자 juk@

'신상필벌' 원칙은 삼성그룹이 이어온 주요 인사 키워드다. 때문에 당장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는 IM 부문에서는 개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IM사업부를 중심으로 전체 임원을 10% 가량 줄일 예정이다. 고동진 IM부문장은 유임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모바일 사업과 겹친 중인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손을 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장사업 등 미래 먹거리 부문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관련 부문을 키울 수 있다는 추측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DS부문에 전장사업부를 신설하고 하만을 인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쟁사에 비해서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박종환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팀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팀장은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임원이다. 최근에도 이 부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젠 동남아" 越·인니 공략 '후 글로벌경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현지 사업장 등 시찰, 총리 면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동남아시아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 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동남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출방에는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 등도 함께한다.

신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4년 완공된 롯데센터 하노이와 2022년 완공 예정인 롯데몰 하노이 등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하노이 시장과 만난다.

다음날에는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호찌민으로 이동해 현지 사업장과 착공 예정인 에코 스마트시티 등 현장을 방문한다.

롯데는 베트남에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시네마, 롯데자산개발, 롯데호텔 등 16개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가 진출해 있고, 1만100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2016년까지 롯데의 베트남 총투자금액은 1조8000억원이며, 지난해 롯데의 베트남 매출액은 1조600억원으로 전체 해외 매출액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6일부터는 인도네시아로 이동한다. 이곳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총 4조원 투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 부지를 찾는다.

인도네시아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지알에스, 롯데케미칼 등 10여개 계열사가 나가있다. 롯데는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약 8000명

의 현지 직원이 근무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KS(크리카타우 스틸)가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부지 사용 권한을 매입했으며 올해 2월 토지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롯데는 이곳에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나프타 분해설비)를 포함한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공백기간 동안 챙기지 못한 글로벌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현대백그룹 식구된 한화L&C "현대L&C로 새출발"

토탈 리빙·인테리어 기업 발돋움  
유통·패션과 '3대 핵심사업' 육성



현대백화점그룹이 종합 건자재 기업 한화L&C에 대한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현대L&C'로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화L&C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종 인수 금액은 3666억원이다.

앞서 그룹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은 지난 10월 한화L&C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최근까지 조직체계 정비, IT 통합, 브랜드 변경 등 '인수 후 통합 작업(PMI)'을 진행해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특히 한화L&C 최

종 인수와 동시에, 사명을 '현대L&C'로 변경하고 새 CI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L&C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현대L&C'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보이는 현대L&C CI는 홈페이지와 분사 및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4개 지사, 세종 사업장, 테크센터(연구소) 등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인테리어 전시장과 직영점, 대리점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최종 인수 확정으로 한화L&C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편입된 만큼 그룹 내 계열사간 동일성

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현대L&C'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 확정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현대리빙의 가구·인테리어 소품 사업 외에 창호·바닥재·인조대리석 등 건자재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매출 2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토탈 리빙·인테리어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지난해 현대리빙의 매출(연결기준)은 1조 4447억원이며, 현대L&C는 1조 6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현대L&C 인수를 계기로 리빙·인테리어 부문을 유통(백화점·홈쇼핑·아울렛·면세점)과 패션(한섬·현대G&F·한섬글로벌) 부문과 함께 그룹의 3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진 기자 tree6834@